

<소크라테스대화법>

대화편 『파이돈』 읽기

## II. 죽음과 관련된 논의 61c – 69e

### 2. 철학자(지혜를 사랑하는 사람)와 죽음 63a – 69e

- 케베스의 물음 – 왜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(철학자)은 자기보가 더 나은 주인의 보살핌을 피해 가벼운 마음으로 기꺼이 죽으려 하는 것인가? 63a
- 소크라테스 – 사후에는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 때문 63c
  - 사후에 지혜롭고 선한 다른 신들 곁으로 간다는 믿음
  - 이승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고인들 곁으로 감다는 믿음
  - 선한 사람들 곁으로 갈 것을 기대함

## II. 죽음과 관련된 논의 61c – 69e

### 2. 철학자(지혜를 사랑하는 사람)와 죽음 63a – 69e

#### ■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낙관적 생각의 근거 64a

: 평생 진심으로 철학에 전념한 사람이 죽음을 맞아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이유, 죽은 뒤 저승에 가서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으로 낙관하게 된 이유

- 진정한 철학자는 전 생애를 통해 죽음을 열망하고 추구한다.
- 평생 죽음만을 추구하던 사람이므로 추구하던 죽음이 다가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.

#### → 진정한 철학자는 어떤 죽음을 추구하는가? 64c

- 죽음은 몸으로부터의 영혼의 해방이다.

## II. 죽음과 관련된 논의 61c – 69e

### 2. 철학자(지혜를 사랑하는 사람)와 죽음 63a – 69e

#### ■ 철학자의 삶과 철학자의 일 64d

- 철학자는 먹을거리나 마실 거리 같은 즐거움을 추구하는가
  - 몸을 보살피는 일과 관련된 그 밖의 다른 쾌락을 추구하는가
  - 철학자들은 몸을 보살피는 일,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가
  - 맵시 있는 옷이나 구두나 다른 장신구를 마련하는 일을 중히 여기는가
- 진정한 철학자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몸을 보살피는 일을 경멸할 것이다. 64e
- 진정한 철학자는 몸에 관심을 두지 않고 되도록 몸에서 떨어져 혼을 지향한다.

## II. 죽음과 관련된 논의 61c – 69e

### 2. 철학자(지혜를 사랑하는 사람)와 죽음 63a – 69e

#### ■ 참된 존재들에 대한 앎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65b

- : 몸과 결부된 감각지각을 통해서 참된 존재들에 대한 앎이 획득될 수 없다.
- 몸은 탐구에 방해가 됨
- 시각과 청각은 인간에게 진실을 전달하지 못함, 아무것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음(보이는 것인 진짜인가, 현상과 실재의 간극)
- 혼이 몸을 동반해 무엇인가를 도찰하여 한다면 몸에 의해 오도당하고 만다.
- 혼이 가장 잘 사유하는 것은 청각이나 시각, 고통과 쾌감 등으로 주위가 산만해지지 않을 때임

#### → 앎은 순수한 사유와 추론에 의해서 획득됨 65c

순수한 사고와 추론은 오직 영혼이 몸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서만 가능함

## II. 죽음과 관련된 논의 61c – 69e

### 2. 철학자(지혜를 사랑하는 사람)와 죽음 63a – 69e

- 정의 자체, 미 자체, 선 자체에 대한 앎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65d
  - 모든 것의 본질은 몸을 통한 감각에 의해서가 파악되지 않는다. 눈으로 본적이 없다
  - 가장 정확하게 사유할 준비가 된 사람이 본질에 대한 인식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다. 65e
  - 가장 정확하게 사유할 준비가 된 사람 : 몸 자체와 가능한 분리시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대상(정의 자체, 이데아)에 순수한 사유를 사용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
  - 몸이 혼과 함께하면 혼이 혼란에 빠져 혼이 진리와 지혜에 이루지 못하게 방해함(감각에 대한 비판) 66a

## II. 죽음과 관련된 논의 61c – 69e

### 2. 철학자(지혜를 사랑하는 사람)와 죽음 63a – 69e

- 영혼의 정화를 통해 순수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 67a

- 어떤 사물에 대해 순수한 지식, 즉 우리가 추구하며 사랑하는 지혜는 몸에서 벗어난 혼 자체로 관찰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

- 살아서는 얻을 수 없거나 사후에나 얻을 수 있다.

- 생전에 이런 지식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몸과 함께하는 것을 피하는 것, 몸의 본성에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, 몸으로부터 자신의 혼을 정화하는 것

- 몸의 어리석음에 오염된 것을 피하는 것, 혼을 몸에서 분리시키는 것 – ‘정화’

- 혼이 몸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, ‘죽음’이다. 67d

## II. 죽음과 관련된 논의 61c – 69e

### 2. 철학자(지혜를 사랑하는 사람)와 죽음 63a – 69e

- 철학자의 관심은 혼이 몸에서 풀려나고 분리되는 것, 죽음이다 67d
  - 진정한 철학자는 생전에 최대한 죽음에 가까운 상태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준비 시켰던 사람이므로, 죽음이 다가온다고 화를 내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.
  - 진정한 철학자는 죽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자로, 모든 사람 중에서 죽음을 가장 덜 두려워 할 것임
  - 진정한 철학자라면 저승이 아닌 곳에서 순수한 지혜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므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. 68b
- 왜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(철학자)은 자기보가 더 나은 주인의 보살핌을 피해 가벼운 마음으로 기꺼이 죽으려 하는 것인가?라는 케베스의 말에 대한 변론



# III.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69e -

## 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의 69e – 70c

- 철학자는 죽음을 태연히 맞이할 것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영혼이 죽은 다음에도, 몸과 분리된 뒤에도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재함을 전제함

- 케베스의 문제제기 69e – 70b

- 혼이 몸을 떠난 뒤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?
-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을 떠나자마자, 혼은 파괴되고 해체된다고, 즉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?

: 호메로스 <일리아스>, 혼에 대한 생각에 근거한 이야기/ 유물론적 사고

→ 사람이 죽었을 때 혼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며, 혼이 어떤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과 증명이 필요하다는 케베스의 지적

# III.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69e -

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 - 대립자로부터의 증명 70 c – 72c

- 소크라테스는 죽음 사람들의 혼이 저승에 가 있느냐, 그렇지 않느냐 문제  
고찰 시작

- 오래된 하나의 설 70c

- 이승에서 저승에 도착한 혼들이 거기에 있다가, 이승으로 와서 죽은 자들  
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,

-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서 다시 태어난다면, 우리의 영혼은 저승에 있어  
야 한다. 혼이 존재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

→ 우선, **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음** 70d

# III.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69e -

## 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 - 대립자로부터의 증명 70 c – 72c

- 소크라테스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논증 제시
  - 모든 것이 생겨나는 방식(법칙)에 대한 논의 70d
  - 대립되는 것들은 대립되는 것에서 생긴다는 원리 입증 70e – 71a
    -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과 대립됨
    - 옳은 것은 옳지 못한 것과 대립됨
    - 더 큰 것은 더 작았던 것에서, 더 강한 것은 더 약한 것에서
    - 더 느린 것은 더 빠른 것에서 생김
    - 더 못한 것은 더 나은 것에서, 더 옳은 것은 더 옳지 못한 것에서 생겨남
- 모두 반대향으로의 변화된 것

# III.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69e -

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 - 대립자로부터의 증명 70 c – 72c

■ **대립되는 것들은 대립되는 것에서 생긴다는 원리 입증** 71b -71d

- 서로 대립되는 쌍마다,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, 나중 상태에서 처음 상태로 올라감
- 자고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것에 대립되듯, 살아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것에 대립된다
- 살아 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이 대립되는 것이라면, 이것들은 서로에서 생겨나며, 두 가지 생성과정이 있다
- 자고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이 대립되는 것이며, 자고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것에서 생기고 깨어 있는 것은 자고 있는 것에서 생김, 잠드는 것과 깨어나는 것의 생성을 설명함
- ✓ **죽어 있는 것과 살아 있는 것이 대립되는 것이며, 그것들은 서로에게서 생성됨**

# III.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69e -

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 - 대립자로부터의 증명 70 c – 72c

- 죽음과 삶은 대립되는 것이며, 그것들은 서로에게서 생성됨이 밝혀졌으므로, 혼은 당연히 저승에 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게 됨 71e
  - 두 가지 생성과정 중 하나는 죽는다는 것
  - 이에 대립되는 생성과정을 생략하면 자연을 절름발이가 됨
  - 죽음 것에 대립되는 것은 되살아남, 즉 죽어 있는 사람에서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성과정이 있다. 72a
    - 대립되는 둘 사이의 생성과정이 원을 그리듯 서로 균형을 이루지 않고, 생성이 한 점에서 그와 대립되는 점을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출발점으로 되돌아오지 않거나 한다면, 모든 것은 생성하기를 멈출 것이다. 72b

### III.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69e -

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 : 상기 논증 72e - 77a

- 소크라테스의 ‘배움(알게 됨)이란 상기’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영혼의 불멸을 입증하고자 함 72e – 73a
  - 지금 상기하게 되는 것들은 이전에 미리 알고 있었음(배웠음)이 필연적이다
  - 무엇인가를 상기하려면,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전에 어딘가에 있지 않았다면 그것을 불가능하다.
- 상기이론에 따르면, 영혼은 불멸의 존재임을 알 수 있다.

# III.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69e -

## 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 : 상기 논증 72e - 77a

- 올바른 방법으로 질문을 받으면 저절로 올바른 대답을 한다. 73a - 사람들에게 인식(앎)과 올바른 설명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.
- 사람들에게 기하학적 도형 같은 것을 보여주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음 - <메논> 노예소년 기하학에 대한 지식을 상기함
- 상기에 대한 경험을 요청하는 심미아스 73b - 73c
- 만일 누군가가 어떤 것을 감각적 지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, 그것 자체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, 다른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상기라고 할 수 있다 - 상기의 규정 1
  - 사랑하는 소년의 뒤풀을 보면, 그 뒤풀을 알아 볼 뿐만 아니라, 그 뒤풀의 주인인 소년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상기다.

# III.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69e -

## 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 : 상기 논증 72e - 77a

- 상기함은 닮은 것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, 닮지 않은 것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함 73e - 74 a
  - 뤼라의 그림을 보고 사람을 상기하고, 심미아스 얼굴 그림을 보고 케베스를 상기하고, 심미아스 얼굴 그림을 보고 심미아스를 상기함 모두 가능함
- 닮은 것에 의해 뭔가를 상기할 때는, 그것이 상기되는 것과 완전히 닮았는지 부분적으로 닮았는지 생각함 – 상기의 규정 2 74a
  - 닮은 것들로 무엇인가를 상기하게 될 때, 상기함의 실마리가 된 것과 상기된 것 둘 사이의 유사성에 있어 부족한지 아닌지를 생각함



# III.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69e -

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 : 상기 논증 72e - 77a

■ 같음에 대한 앎 74a - 상기에 의해

- 같은 감각적인 대상들을 보고, 그로부터 '같음'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형성해 내는 것이 아니다.(같은 것 자체)

- 같은 나무토막들이나 돌들을 봄으로써 '같음' 자체에 대한 앎을 얻지 못한다. 74b

- 같은 것들과 같음 자체는 다르지만, 같은 자체에 대한 인식은 같은 것들로부터 얻는 것이다.

- 일상적인 대화에서 '같은'의 단어를 어려움 없이 사용한다. 우리 모두 '같음'의 의미를 상기를 통해 얻은 앎이라 할 수 있다.

- 같은 자체에 대한 앎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혼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.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해야 함을 함축한다.

# III.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69e -

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 : 상기 논증 72e - 77a

## ■ 같음에 대한 앎 74a

- 같은 감각적인 대상들을 보고, 그로부터 ‘같음’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형성해 내는 것이 아니다.(같은 것 자체)
- 같은 나무토막들이나 돌들을 봄으로써 ‘같음’ 자체에 대한 앎을 얻지 못한다. 74b
- 같은 것들과 같음 자체는 다르지만, 같은 자체에 대한 인식은 같은 것들로부터 얻는 것이다.
- 같은 자체에 대한 앎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혼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
- 이것은 우리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해야 함을 함축함

# III.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69e -

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 : 상기 논증 72e - 77a

- 같은 돌들과 같은 나무토막들은 같은 것 자체 보다 부족해 보인다.  
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74d

- 어떤 사물을 보고 ‘내가 보고 있는 이 사물은 다른 사물이 되려하지만 부족하여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조품에 불과하다’라고 하듯, 보고 있는 사물이 닮았지만 부족하다고 말할 때 다른 사물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. 74c

-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같은 것들은 같은 것 자체에 미치지 못한다.
- 우리가 같은 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같은 것 자체에 같아지려고 하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이미 같은 것 자체를 알고 있었음에 틀림 없다. 75a

### III.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69e -

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 : 상기 논증 72e - 77a

-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감각기관(감각적 지각)에 의해서이다. 75a
-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있는 같은 것들(같은 돌들)이 같은 것 자체와 같아지기를 바라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려며, 같은 것들을 보고 듣는 감각 기관으로 지각하기 전에 이미 같은 것 자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함
-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보고 듣고 그 밖의 감각기관을 사용하므로, 이에 앞서 같은 것 자체(동일함에 대한 앎)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 없음
-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같은 자체에 대해 알고 있었음이 틀림 없다.

#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75c -

## 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 : 상기 논증 - 배움은 상기다

- ❖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날 때도 ‘같은 것 자체’에 대해 알고 있듯이, 아름다운 것 자체, 선한 것 자체, 옳은 것 자체, 경건한 것 자체를 알고 있었음
- 이 외 ‘자체’라는 말을 덧붙일 있는 모든 것들을(이데아) 태어나기 전에 알고 있었음 75c - d
- 윤회할 때마다 ‘자체’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는 것들을 알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늘 알고 있는 것임
- ‘알고 있다’의 의미는 일단 얻은 인식을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임
- ‘망각’이란 인식을 잃는 것

#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75c -

## 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 : 상기 논증

- ❖ **‘상기’의 의미** - 태어나기 전에 인식을 얻었다가 태어나는 순간(몸과 결합하는 순간)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감각 훈련을 통해 갖고 있던 인식을 되찾는 것 75e
  - 시각, 청각 이외 다른 감각 기관을 통해 어떤 사물을 지각할 경우, 잊어버렸던 (망각했던) 다른 사물을 생각해내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,
  - 모든 이런 기준(‘자체’)에 대해, 태어나는 순간 그것에 대한 인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, 태어나기 전에 언젠가 배운 것, 즉 알고 있던 것을 상기하는 것이다.
  - 혼들은 태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알고 있었고,
  - 혼들은 사람의 몸을 취하기 전, 몸과 떨어져 존재했고, 또한 지혜를 갖고 있었음
  - 태어날 때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, 우리가 태어날 때 그것에 대한 인식을 망각하게 된다고 주장 76d

#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 75c -

## ❖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 : 상기 논증 – 이데아의 실재성

-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아름다운 것 자체, 선한 것 자체, 옳은 것 자체, 경건한 것 자체를 알고 있었음
- 태어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이데아에 대한 앎을 감각 지각을 통해 상기한다는 것을 통해, **이데아의 실재, 즉 아름다운 것, 선한 것 등이 실재한다고 주장하고,**
- 이데아에 대한 앎을 우리가 상기한다는 것을 통해 **우리의 혼이 태어나기 전, 그것에 대한 지혜를 간직한 채로 혼이 존재하는 것을 주장**
- **아름다운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듯, 혼도 태어나기 전에 필연적으로 존재함** 76e – 77a

**감사합니다**